

제주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앞날은...

<오동봉·중부공원>

제주시, 사업자 제안 수용 통보 이어 7·9일 주민설명회 2025년 준공 예정... 보상이 관건·사업 철회 목소리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오동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추진중인 도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가 사업 제안을 공고해 올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오동봉공원)과 제일건설(중부공원)에 제주시가 5월 말 제안 수용을 통보한 데 이어 이번주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과의 보상이 논의과정인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환경단체는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일몰대상지를 개발이 아닌 보전 녹지로 지정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7일(중부공원)과 9일(오동봉공원) 각각 애항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특례개발은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사업자가 모두 매입,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다. 오동봉공원 면적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까지 남북으로 이어진 76만4863㎡로, 이 중 사유지는 51만769㎡다. 중부공원은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21만4200㎡

로, 사유지가 대부분(20만3954㎡)을 차지한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오동봉공원은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4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면적은 공원이 87.5%, 비공원이 12.5%를 차지한다. 중부공원은 372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업면적은 공원 79%, 비공원이 21%다. 두 공원의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오동봉공원은 약 1500억원, 중부공원은 5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8~9월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쯤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제주시의회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할 예정이다. 사유지 매입은 내년부터 시작해 사업 준공은 2025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난개발과 도심 팽창 등을 우려하며 현 상태의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대로 지정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 도시공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앞두고 토지주들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며 "하반기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11월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코로나로 심해진 농촌 구인난에 농기계 지원 늘리고 드론 띄우고

서귀포시 드론 방제 첫 도입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는 농촌에 농기계·드론이 확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농기계 지원·보급사업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역 내 희망 농가에 소형농기계 300여대(11억원)를, 중형농기계 30여대(8억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소형 395대(11억5000만원), 중형 34대(6억7000만원)를 지원했다. 더불어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동가위·운반기 등 편의장비 957대(28억원)를 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899대(24억원)를 지원했다.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영농법인에도 콤팩트·트랙터·파종기 같은 공동경영을 위한 시설·장비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역 내 영농법인 2곳에

9억원 상당의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밭작물 농가 가운데 드론방제를 희망하는 228농가에 드론 방제비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을 이용해 방제하면 작업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농법에서는 3인이 1500ha를 방제할 경우 454일이 소요됐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150일로 단축시킬 수 있어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드론방제시 소요되는 농약은 별반 차이가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련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작물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농기계 사업 다각화·규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영중기자 yjhyeon@ihalla.com**

병의원 등 비대면 점검 평가

제주보건소는 병·의원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8월 5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문점검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380개소와 안경업소 92개소, 치과기공소 34개소다. 자율점검에 따라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과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전사나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문미숙기자**



"갓 수확한 참외 맛보세요" 장맛비가 내린 6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진드리 일대에서 한 농민이 잘 익은 노지 참외를 수확해 정성스럽게 감싸고 있다.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생기나

지구별수협 정관 차이 뚜렷 위성곤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어촌계장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구별수협

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톨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어촌계장이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중기자 bu8385@ihalla.com**

별빛누리공원 4개월만에 제한적 개방

오늘부터 사전예약제 운영

코로나19로 넉달 넘게 휴관 중이던 제주별빛누리공원이 7일부터 일부시설을 제외한 관람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관람가능 시설은 4D영상관·천체투영실·관측실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시시설 단계별 개방계획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해 1회 관람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전시실과 부대시설은 전시물 접촉과 동선 혼잡으로 전염 우려가 있어 이용이 제한된다. 관람을 위해선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관람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해야

하고,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예약시간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관람권 발매가 이뤄진다. 시설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을 마쳐야 입장할 수 있다. 시설 내부에선 이동 동선에 따라 이동하며, 2m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37.5℃ 이상 발열자와 호흡기 질환자, 2주 이내 해외여행자는 입장할 수 없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 오후 3~11시, 동절기 오후 2~10시이며, 사전예약이나 자세한 사항은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나 전화(728-8900)로 문의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로컬 브랜드 참여기업 모집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제주사회적경제기업의 로컬 브랜드 육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이 관리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제주 로컬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참여 기업에는 브랜드 강화 및 지식재산, 기술, 성분 분석 등 수요가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며, 제주 소재의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평가를 통해 브랜드 패키지 지원 4개 기업, 지식재산 및 기술지원의 경우 최대 20개 기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hub.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4236-3411. **김현석기자**

그랜드보청기

대한민국 동행 세일
보청기전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 보청기 수리(A/S) 방문 점검
-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그랜드 첫 방문시 배터리 및 습기제거제 무료 증정 이벤트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 중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